

꼬리 무는 뇌물·납품비리...공직사회는 수사중

2016 사건 그 후 5 잇단 공직비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비리서 촉발 전방위 확대 '비위 징계' 간부급 공무원 최근 5년간 40여명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의 용역계약 비리
로 촉발된 검찰의 수사가 올 하반기 광주·
전남 공직사회를 공포 열려버렸다.
지난 9월 대대적인 광주시청 압수수색
으로 수사의 포문을 연 검찰은 3개월 넘게
공직사회의 납품계약 관행에 깊숙이 갈을
들어갔다. 검찰은 납품 비리에 이어 공사
수주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수사 대상
은 전직 군수·구청장에서 정책자문관, 비
서관, 담당 공무원 등 전 직위를 망라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 9월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
관을 체포하고 시정 7개 실·국에 걸쳐 대
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김 전
자문관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동생인 김
용환(57) 전 광주시청 비서관도 수사 대상
에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이 납품 계약에 부
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 형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와
중에 광주의 한 전기 제조업체가 기록한
'뇌물장부'가 발견됐다. 납품 계약을 대가
로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비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부를 근거로 광주 광산구청, 전남개
발공사 등이 연이어 압수수색을 당했고

담당 공무원도 줄소환됐다. 결국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전 광산구청 비서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직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비서관도 친척이 일
하는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
의로 구속됐다.
전남에서도 집터 매입 비리로 전남도의
회 의장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
과 관련해 보성군수가 입건됐다. 해남군
수는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수수주 브로커 수사는 현재진행형이
다. 보성군수 비서관, 여수시정 회계과
공무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10여
명이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 광주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가
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 대상에 오른 인원이
최근 5년 새(2012~2016년) 40명에 달
했다. 4급(임기제 포함) 서기관이 14명, 5
급 사무관(농촌지도관 포함)이 2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5명에 이어 올해는 11
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징계 사유는 뇌물과 금품수수가 9명으
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7명,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공사 지도감독 소홀 2명 등이다.
준감제추행과 사생활 문란, 업무 태만, 도
박, 폭행, 민원 아기도 도마위에 올랐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 17:30
달출몰 08:01 달몰입 18:33

건강관리 유의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 춥겠다.

광주	맑음	-3/6	보성	맑음	-5/6
목포	맑음	-2/6	순천	맑음	-2/7
여수	맑음	-1/6	영광	맑음	-6/4
나주	맑음	-6/6	진도	맑음	-3/5
완도	맑음	-1/6	진주	맑음	-4/4
구례	맑음	-5/5	군산	맑음	-4/3
강진	맑음	-3/6	남원	맑음	-7/5
해남	맑음	-5/5	축산도	맑음	2/5
장성	맑음	-5/5			

지역	방향	파고(m)	시간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서~북서	0.5
	면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북서~북	1.0~1.5

구분	간조	만조
목포	07:47	02:42
	20:26	15:07
여수	03:17	09:57
	16:01	21:54

날씨	3(토)	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기온	-1/9	0/8	1/9	-1/8	0/8	-1/9	-1/7

광주서도 사납금 없는 택시 운행 협동조합 택시 공식 출범



한국택시 광주협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계동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식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 이사장,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임택 광주시의원, 김병구 한국택시 포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을 상징하는 노란색 택시들이 선보였고, 이 택시를 운전할 90명의 기사들은 조합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조합원들은 "매일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속, 신호위반, 승차 거부 등의 불법운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합 출범으로 이같은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수익을 끌어올려 일할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전문기자 ej621@/사진=김진수기자 jeans@

광주 고싸움놀이 전수관 밑그림

남구 중간보고서...원형운동장 확장, 교육·편의시설 등 갖춰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 새로 지을 고싸움놀이 전수관의 밑그림이 나왔다.
(조감도)
남구는 29일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용역을 수행한 천덕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등은 연면적 1558㎡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신축 전수관을 제안했다.
전수관은 기존 고싸움놀이 시연장을 지



를 35m짜리 원형운동장으로 확장하고 계단형 관람석을 갖춰 전수관 지하 1층과 연결한다.
지하에는 고싸움놀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지상 1층에는 280㎡ 넓이의 전시실을 마련해 크기와 용도가 다른 고 11개 조를 선보인다. 지상 2층에는 고싸움놀이 농악단 연습실, 교육시설,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배치된다.
충남 당진에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과 경북 안동의 차전놀이 전수관, 전남 진도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을 참고해 문화·역사·건축적 가치를 높인다. 2018년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43억6000만원 수준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님이·해돋이 볼 수 있다

광주·전남 큰 추위 없어

올해의 마지막날과 새해 첫날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님이,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온 역시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도 없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새해 첫날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29일 예보했다. 1월 1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0~2도, 낮 최고기온은 9~10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전망이다.
새해 첫 해는 아침 7시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다. 7시31분 울산 간절곶을 시작으로 내륙에서 관찰되며, 광주·전남에서는 무등산에서 7시34분, 완

5·18민주광장서 해맞이 함께해요

밤 11시30분부터 제야의 종 타종 행사...지하철 연장 운행

2016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7년 정유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31일 오후 11시30분부터 2017년 1월1일 0시35분까지 5·18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엄중한 시국 상황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시민의 여망을 반영해 그 동안 열어온 송신년 축제를 취소하고, 간소하게 타종식만 진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31일 송년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지하철도를 1월 0시 57분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풍뎁화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